

# 타자→투수→타자...돌고 돌아 꽃 피운 장영석

(백선)

## 베이스볼 피플

7월부터 23경기 타율 0.317·OPS 1.078  
1·3루수 소화...kt 이적 윤석민 빈자리 채워  
"마인드컨트롤 터득...일회일비하지 않겠다"

장영석(27)은 요즘 백선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다. 연일 장타쇼를 선보이며 쉬어 갈 곳 없는 타선을 만들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본격적으로 1군에 진입한 7월부터 8일까지 23경기에 나서 타율 0.317(63타수 20안타), 5홈런, 14타점을 기록 중인데, 20개의 안타 가운데 장타(2루타 6개 포함)가 11개나 된다. 그만큼 팀의 득점 생산력을 높였다는 뜻이다. 16차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4사구도 13개나 얻어내며 출루율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아직 많은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표본이 작지만, 1.078의 OPS(출루율+장타율)는 장영석의 활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이후 OPS와 경기당 득점생산능력(RC/27·11.19)은 팀 내 1위다.

### ●타자→투수→타자

장영석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기만성형 선수다. 부천고를 졸업하고 2009년 신인지명회의 2차 1라운드(전체 3번)에서 히어로즈에 지명된 기대주. 그러나 경찰야구단(경찰청) 입대 직전 시즌인 2012년까지 12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타율 0.199(261타수52안타), 7홈런, 30타점이 전부였다. 삼진(84개)이 볼넷(21개)의 4배에 달했다. 2011시즌 중반에는 투수 전향을 선언하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2경기에 등판해 방어를 13.50(2이닝 3자책점)의 초라한 성적만 남겼다. 팔꿈치 통증도 그를 괴롭혔다. 결국 미련 없이 타자 재전향을 택했다.

전역 후에도 2년간(2015~2016 시즌) 29경기에 출장해 34타수 9안타(타율 0.176)를 기록한 것이 전부였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때마다 엄청난 타구 비거리를 자랑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성적에 변화는 없었다. 부답이 컸던 탓에

최대 강점인 장타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1군보다 2군 생활이 익숙했다.

### ●일회일비는 없다!

5월 24일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았지만, 2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이틀 뒤(26일) 다시 2군행을 통보받았다. 7월 8일 두 번째 1군 등장은 장영석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등록 직후 9경기에선 14타수 2안타(타율 0.143)로 부진했지만, 4타수 3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한 7월 23일 고척 kt전부터 타율 0.367(49타수 18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을 이끌고 있다. 장영석은 비결 중 하나로 마음가짐의 변화를 꼽았다. 과거에는 풍부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조급함에 발목이 잡혔던 것이다. 장영석은 "항상 똑같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마인드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정작 내 야구를 못 했고, 내 실력도 못 보였다. 일회일비하지 않겠다"고 헌우어 말했다.

### ●공수겸장 내야수의 등장, 백선은 웃는다

백선 장정식 감독도 장영석의 활약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장 감독은 사령탑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백선의 매니저와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장영석을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장)영석이 2군에서 준비를 아주 잘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찾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지금까지 해주면 (마이클) 초이스를 1루수로 돌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장영석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뛰어난 코너 내야수로 활용도가 높다. 글러브 핸들링과 송구 능력이 뛰어나 1루와 3루 수비 모두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kt로 트레이드된 윤석민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영석은 "내가 어떤 유형의 타자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경기에 내보내주시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는 여전히 경험을 쌓고 있다. 기본에 좌우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백선 장영석은 2009년 입대 당시 차세대 거포 기대주로 평가받았지만, 2016년까지 한때 투수로 전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올 시즌에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 타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가 품은 활약의 비결은 마음가짐의 변화다. 스포츠동아 DB



## 김주찬 걱정 집어치워

타율 0.148서 '3할 타율' 급상승  
시즌 초반 우려 딛고 베테랑 증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 현재까지는 이 타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 문장이다. 올 시즌 처음으로 3할 타율에 입성한 '베테랑' 김주찬(36·KIA)의 이야기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시작한 시즌이었다. 김주찬은 2013시즌을 앞두고 KIA와 이미 한 차례 4년 프레이지트(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액은 무려 50억 원. 많은 선수만큼이나 책임감이 뒤따르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건강'이 발목을 잡았다. KIA로 이적한 뒤 맞이한 첫 시즌에 47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두 번째 FA 취득이 1년 미뤄졌다. 그는 기존 계약대로라면 마지막 해였을 지난해에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6를 기록했다. 경기 수, 타율 모두 개인 최다기록이었다. 소위 말하는 '짜꿌'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에게는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지난해의 추억은 어느새 뛰어넘어야 할 기준선이 됐다. 부담감에 시즌 초반부터 타율이 곤두박질쳤다. 그가 4월에 기록한 타율은 0.183. 최저타율은 0.148까지 떨어졌다. 5월에도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초반에 잠시 반짝임이 있었으나 중순부터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결국, 5월에도 월간타율 0.145를 기록해 고개를 숙였다. 승승장구하는 팀 성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고민은 늘어만 갔다.

김주찬의 방방이는 내리찍는 태양과 함께 6월부터 뜨거워졌다. 그의 타율은 거짓말같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경기에서 4안타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6월에만 3경기나 됐다. 화끈한 몰아치기와 함께 타격감도 점차 올랐다. 17경기에서 27안타를 때려 6월 타율 0.435를 기록했다. 앞서 두 달간 친 안타보다 6월 한 달에 기록한 안타가 더 많았다. 7월에도 불방망이는 계속됐다. 월간타율 0.384를 기록해 6월보다 다소 식은(?) 타격감을 선보였으나 시즌 타율은 어느새 0.290을 돌파했다. 그리고 8일 광주에서 열린 넥센전. 그는 3안타를 작렬시켜 마침내 타율 0.302를 찍었다. 올 시즌 첫 3할 입성이었다.

KIA는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들어 그 무섭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중위권서 맴돌던 두산이 연승행진을 발판삼아 무섭게 상위권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선두 수성에 힘을 가하려면 다시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상태다. 김주찬의 살아난 타격감은 KIA의 후반기 성적을 이끌고 갈 키(Key)다. 베테랑의 면목은 팀이 위기를 맞은 순간 빛나는 법이다. 시즌 초 꾸준히 자신을 믿어준 팀과 동료들에게 이제는 그가 응답할 때다.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 한화 캡틴 송광민 "젊은 선수들, 지금이 기회!"

"멀어진 가을야구, 젊은 선수층 아쉬워  
리빌딩 필요, 신인들이 더 분발해주길"

한화는 올 시즌도 가을야구가 요원하다. 4할을 오르내리는 저조한 승률 속에 삼성과 8위 싸움을 하고 있다. 5위권과는 무려 10경기차 이상이 난다. 가장 힘이 빠지는 건 선수들이다. 열심히 시즌을 준비했지만 또 다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올해가 끝이 아니다. 야구는 계속 된다. 하위권 팀은 잔여경기를 치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화 캡틴 송광민은 팀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의 분발을 바랐다. 그는 이제 팀 내 고참급이다. 올해 부상으로 자주 자리를 비운 이용규 대신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주장 완장은 무겁다. 선수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있다 보니 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한 책임감을 누구보다 많이 통감하고 있다. 그는 "멤버 구성이 나쁘지 않은데 또 다시 가을야구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고는 "주장을 하면서 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론 언제까지 풀죽어있을 수만은 없다. 송광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을 준비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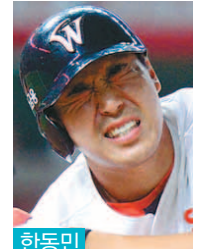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품은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층이다. 그는 "144경기를 치르면서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부족하다보니 부상자가 나왔을 때나 혹은 주전이 부진할 때 공백을 메워줄 수가 없다"며 "팀이 앞으로 더 좋아하려면 리빌딩이 진행돼야 한다. 젊은 선수들에게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좀 더 분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행히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그는 "투수 쪽에서 김재영 김범수 등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야수 쪽에서도 이동훈 같은 선수들이 빨리 성장해서 팀이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홍재원 기자 hong927@donga.com



송광민

### SK 한동민,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

SK 한동민이 왼쪽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SK 구단은 9일 "한동민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재활까지는 3개월 가량 소요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민은 올 시즌 103경기에 나서 타율 0.294, 29홈런, 73타점을 기록하며 SK 타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8일 인천 NC전 8회 2루 도루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일찍 시즌을 접었다.



한동민

## 의무경찰 폐지, 경찰야구단 운명은?

정부,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검토  
확정된 지침 아니라 향후 진행 주시

"경찰야구단은 어떻게 된단니까." 경찰이 2023년까지 병역 제도의 하나인 의무경찰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연예 의경'을 가장 먼저 없애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구계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찰악대 소속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탭(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우선 연예 의경부터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야구단과 축구단 등 의경 스포츠단도 폐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스포츠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2004년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자 선수들에게 건전하게 병역 의무를 소화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포츠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포츠단 폐지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야구단 유승안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잘못된 소문도 많이 들리더라"면서 "우리로서는 예정대로 선수를 뽑고 훈련하고 경기를 하고 있다.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BO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KBO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야구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경찰이 병역 제도의 하나인 의무경찰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면서 2005년 12월 출범해 명맥을 잇고 있는 경찰야구단의 향후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왼쪽은 유승안 현 경찰야구단 감독. 스포츠동아 DB

다"면서 "먼저 나서서 성급하게 대안을 찾고 준비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의경 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의경 제도를 폐지하려다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어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예 의경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면 향후 스포츠단에도 불뚱이 튀지 않을 수 없다. 야구 관계자들 모두 그래서 최근 삼삼오오 모이면 "경찰야구단은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고 물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 백선 이택근, 역대 37번째 통산 1500경기 출장

백선 이택근(37)이 KBO리그 역대 37번째로 개인 통산 1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이택근은 9일 광주 KIA전에 6번 지명타자로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2회 1사 주자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서며 기록을 완성했다. KBO는 이택근에게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택근

바로잡습니다 9일자 4면 '죽스는 이적생들'의 제목 '죽스는'은 '죽우는'의 오타이기에 바로잡습니다.